

# OECD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의 결과

2006.4.4(화)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는 개발과 환경간의 관계, 개발과 환경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국제환경협약 이행 지원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행동계획, 기후변화 적응관련 선언문을 채택한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 OECD 30개 회원국의 장관, 차관, 원조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 박석범 국제경제국장,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및 외교부, 환경부 실무자가 참석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OECD 회원국에 개발협력시 기후변화 적응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OECD에서 관련 정책지침, 경제적 분석 등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언문”을 채택함.

■ 금번 논의를 통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필수적이며, 환경이 악화될 경우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발과 환경관련 국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등 국제환경협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됨.

## 1. 주요 결과

■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OECD 회원국 정부, 개발협력기관과 환경기관, OECD 사무국이 추진해야 할 개발과 환경의 통합에 관한 “공동행동계획”(Framework for Common Action)을 채택함.

## 2. 우리 대표 활동

■ 이규형 차관은 개발과 환경간의 통합에 관한 선언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토대로서의 환경(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정치적 리더쉽과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며, 특히 정치적 리더쉽은

입법, 재원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함.

- 또한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ESCAP 환경장관회의에서 금번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음을 소개함.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예로 중국의 황사를 지적하면서, 황사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조림사업을 지원하였음을 소개함.

■ 고재영 실장은 국제환경협약 이행 지원문제 세션에서 개도국이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교육, 훈련 등 능력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지적함.

- 또한 개도국에서 개발과 환경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를 통한 간접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 3. 관찰 및 평가

■ 경제 및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환경이 중요하며,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측면을 주류화(mainstream) 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개발과 환경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 기후변화への 적응문제는 개발과 환경이 상

호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됨.

■ 개발과 환경이 상호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생태관광, 보건, 수자원, 위생, 청정생산, 산림, 재난대비, 농업 등이 지적된 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향후 ODA 지원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ODA 제공은 갈수록 커질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분야에 대한 ODA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이 분야의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는 GNP의 0.7% 원조제공 이외에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0.1% 추가제공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ODA의 40%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함.

■ ODA만으로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항공권 연대기금 등), 무역, 민간의 잠재력 활용방안 등이 지적됨. 우리나라도 ODA와 민간의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사업 개발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정부, NGO, 기업(스타벅스, 코카콜라)이 협력한 사례를 발표함.

### 4. 세션별 논의동향

#### 가. 세션 1 : 빈곤감소, 환경, MDGs

■ 주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건강한 환경이 MDG 달성과 개발 아젠다의 필

수적 요소임을 확인함

- 특히 환경문제의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 악화 간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개발과 환경이 연계되어 상호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이슈로서 수자원, 위생, 보건, 산림, 재난 대비, 농업,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제시됨

-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개발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됨

■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평가(SEA), ODA, 민간투자 방법 등이 제시됨.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환경과 개발 이슈를 대처함에 있어 효과적인 빈곤감소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룸

■ 빈곤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 지역사회의 강화, 공공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됨

■ 우리 대표(이규형 차관)는 경제 및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환경의 가치에 대해 강조함.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예로 중국의 황사를 지적함. 공공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 각 대표들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구축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행동에 기인한 정책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고 언급함

■ OECD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 제고를 위해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원조 제공국에 대한 모니터링, 우수 사례의 공유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 나. 세션 2 : 개발과 환경의 국제 거버넌스

■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거버넌스와 관련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제, 국내 수준에서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일관성이 요구됨

■ 국제 거버넌스의 장점과 단점 평가는 유엔 체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system-wide한 일관성을 촉진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었음

-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유엔이 규범적 권위가 있기는 하나 통일성이 결여되고 중복된 임무 부여로 비효율적이며 실제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UNDP, 세계은행 국가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함

■ 이와 관련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환경기구(UNEO)가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었으나 EU 국가들과 미국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 OECD는 우수사례 전파, 국가적 및 부문별 환경통합, 일관성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맡아야 함이 지적됨

### 다. 세션 3 :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위한 시너지 조성

- OECD 회원국은 이미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협력이 개도국의 국가전략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음
- 네덜란드, 세계은행 등은 지구환경금융(GEF)이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국제환경협약간 일관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GEF에 대한 재원 보충(제4차)의 중요성을 역설함
- 환경과 개발 기관간 공동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슈(사막화 방지, 청정에너지 확산 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 청정개발체제(CDM)가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회원국간 의견을 같이 함
-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민간 분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민간 파트너십과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이 많은 회원국 참석자들로부터 강조됨
- 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미이행의 비용 평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에 관한 우수 사례 발굴 등과 관련하여 OECD의 역할 필요성이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됨

- 우리 대표는(고재영 환경정책실장) 개도국이 주요 국제환경협약 이행수단인 재정과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 청정개발체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교육,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여야 함을 강조함
- ※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선언문』을 채택함

### 라. 세션 4 : 종합

- 스웨덴 대표는 개발과 환경장관 합동회의를 3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차기 회의 2009년 개최) 또한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경제성 검토(EDRC) 경우처럼 Peer Review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네덜란드는 동 계획의 이행과정에 개도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도국의 개발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함
- UNEP와 세계은행은 개도국과의 대화채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심층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